

충청북도의회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01. 10. 26)

##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시 승격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김 대 중 대통령님 !

그리고, 국회의장, 새 천년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 장관님 !

새 천년, 새시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지난 9월 대통령께서 충청남도청 방문 시에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승격을 검토하라는 지시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3만 2천 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도 계룡출장소와 더불어 특례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증평출장소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2개읍 9개면 중 증평읍과 도안면을 분리하여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보다 1년 후인 91년 3월에 개칭 하였습니다.

증평출장소를 계룡출장소와 비교를 하여 보면,

- 관할 면적은 증평은 81.8km<sup>2</sup>, 계룡은 60.68km<sup>2</sup> 이고,
- 현재 인구는, 증평이 3만 2천 400명이며, 계룡은 2만 8천 200명 이며,
- 공무원 수는 '98년도에 223명에서, 구조조정으로 현재 141명으로 축소를 시킨 반면, 계룡은 개청 시나 지금이나 90명입니다.
- 계룡출장소에는 3군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으나, 증평출장소 관내에도 37사단과 67사단, 공수특전 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주민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괴산군수 선거와 괴산군의회 의원 선거 시 주권을 행사하면서도 괴산군의 행정적 영향이 전혀 없으며, 두 명의 군 의원 역시 증평출장소와 관련한 행정권에서 벗어나 있어, 주민들은 소외의식과 박탈감에 차 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을 아주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조직진단 없이 무작위로 퇴출시키고, 소장 직급을 낮추는 등,

관심이 없는 중앙부처와 도정의 행태는, 증평출장소를 폐지하려는 처사는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애초부터 지금까지, 계룡출장소 보다 우위에 있는 증평출장소의 3만2천400명의 주민과 140여명의 직원들에게, 더 이상 푸대접, 무대접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대통령께서 충청남도 방문시, 계룡출장소를 특례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증평출장소 주민들과 150만 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어떠한 형태이든 시 승격이 꼭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감에 벅차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그리고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행정자치부 장관님 !)

우리 도민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주민이 갈망하는 시승격 또는 특례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한 소망을 담아 건의 드리오니, 특단의 결단으로 주민의 바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